

광주신세계, 소외계층에 ‘사랑의 S-BOX’ 전달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는 “지난 18일 지역인재 육성 프로젝트로 진행중인 대학생 현장실습교육에 참여한 학생 및 임직원과 함께 ‘사랑의 S-BOX’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사랑의 S-BOX는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광주신세계 대표 사

회공헌 사업 중 하나로, 광주신세계는 2017년부터 매월 500만원씩 현재까지 총 5억 4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학생 및 임직원들이 생필품과 간편식사 등의 제품을 S-BOX에 넣어 포장하고 복지관 관계자와 함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직장인극단 DL, 광주일맥원에 공연 후원금 기부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은 생활문화동아리 ‘직장인극단 DL’이 연극 공연을 통해 모은 후원금 224만원을 지역 아동양육시설인 광주일맥원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사진> 해당 연극은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의 ‘생활문화동아리 공간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연수 공간 등을 지원 받아 제작됐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조선훈 김정수 교수·김윤태 박사과정생

국제학술지에 알츠하이머 연구 논문 게재



조선훈 김정수<오른쪽> 박사과정생과 김정수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참여한 세계 17개국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알츠하이머병 연구 논문이 국제학술지

‘Nature Genetics’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유럽계 유전체를 기반으로 개발된 알츠하이머병 다유전자위험점수(PRS)가 비유럽계 집단에서도 유효한지를 정밀 검증했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인종 집단에서 PRS가 유의미한 예측력을 보였으며, 교차인종 PRS 모델이 뛰어난 예측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글로벌 차원의 치매 조기진단 기술 확장 가능성을 입증한 결과로 평가받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경남이주민센터

다문화가정 언어·문화 교육 지원 협약



광주대학교 한국어교육과는 지난 16일 (사)경남이주민센터와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 언어·문화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대 제공>

북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대상 ‘철학토론’ 진행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은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 정기 철학토론’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철학으로 풀어보는 민주적 관리’를 주제로 열린 철학토론은 공단의 핵심 경영방침인 ‘민주적 관리’와 ‘예방 관리’를 철학적 관점에서

직원 스스로 사유하고 성찰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철학토론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열리며 올해 철학토론 프로그램은 자유토론, 철학반 소모임, 나기백 이사장 인문특강 등으로 운영된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전남도사회서비스원, 재난 대비 안전대응 교육



전남도사회서비스원(원장 강성휘)은 지난 18일 영암 기찬랜드에서 서비스원 내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거점센터의 22개 수행기관 응급요원 105명을 대상으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안전 대응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전남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도내 105명의

응급관리요원이 약 4만 2000여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24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택내 동작감지기 24시간 모니터링 ▲가상특보 발효 시 안전 확인 ▲어르신 비상 연락망 정비 등을 통해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dok2000@kwangju.co.kr

TV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출력(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태양을 삼킨 여자(재)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0KBS 뉴스 930	30 여왕의 집(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헬로키즈 TV생물도감2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1]	05 동행(재)	1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0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재)	15 보보보 좋아좋아 스페셜 45 베베핀	00 시피엔스 클럽
[12]	00 KBS 뉴스 12	50 한국인의 밥상(재)	00 12 MBC 뉴스 25 오늘N	00 SBS 12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5 라바 패밀리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우리 동네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25 키즈 펫 도감(재) 55 2시 뉴스 외전	0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30 kbc 뉴스메이커
[2]	00 KBS 뉴스 10 최수종의 여행시대 2(재)			00 뉴스브리핑
[3]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시간여행자 루크(재)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어린이 동물티비(재)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최선규의 이제는 지방시대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이맘때	00 라이즈맨 2 15 슈팅스타 캐치 티니핑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0 트로트 클라스 3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빛나는 나의 도시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론회740	50 여왕의 집	05 태양을 삼킨 여자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대운을 잡아라	30 셉템브사의 비밀 스페셜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45 스모킹 건	00 이유 있는 건축 공간여행자	00 틈만 나면
[10]	00 시사기획 창 50 KBS 뉴스라인W	45 아이 러브 스포츠	20 PD수첩	4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1]	30 영상앨범 산(재)	10 개그 콘서트 스페셜	20 100분토론	
[12]	00 KBS네트워크특선 문화스케치(재) 50 생활의 발견	25 스튜디오 K 스페셜 55 KBS 재난방송센터(재)	45 MBC 뉴스 25	05 도시락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이도록 푸른, 타히티 천국보다 보라보라) 07:00 애코와 친구들 수리수리 넘버랜드 07:15 모두 함께 부스누! 07:30 슈퍼왕스 슈퍼콤보 07:45 최강공룡 미니특공대 08:00 댕동댕 댕동댕 08:50 하프와 친구들 09:20 자이언트 팽TV 09:40 박준빈의 세계 기사식당 3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귀하신 몸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4:3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5:10 고향민국 15:40 마사와 곰 15:55 불룩스 16:10 댕동댕 댕동댕 17:00 페파 피그 17:10 슈퍼왕스 슈퍼콤보 17:40 도래미 프렌즈 쇼츠 17:50 자이언트 팽TV(재)	18:10 EBS 뉴스 18:30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 19:20 고향민국 19:50 극한직업 20:40 세계테마기행 〈국가공간이데의 폭! 폭! 찍어 이탈리아 -태양을 삼킨 땅 나폴라-폼페이〉 21:35 한국기행 〈(사)적인 만남 2부 흐르는 물길 따라〉 21:55 건축탐구 - 집 22:50 EBS 다큐프라임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4:0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24:40 클래스 e(재)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2일 (음 6월 28일 壬辰) ☎ 010-9790-8237

36년생 소소한 것은 차지하고 주된 가치에 충실하라. 48년생 규모보다는 짜임새와 실리에 치중해야겠다. 60년생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의미가 있다. 72년생 구부러지는 것이 아예 부러지는 것보다는 백번 낫다. 84년생 애매한 국면에 놓여 있으면 굳이 실행할 필요 없다. 96년생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36, 95	42년생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음이 무난하다. 54년생 함성으로써 정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6년생 상대의 마음을 읽고 처신하여야 자연스럽다. 78년생 길경이 넘칠 수니 기분이 좋아서 환호성을 지르겠다. 90년생 상당한 기간 동안에 공들여 왔던 것을 수확하는 때가 있으니. 02년생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06, 62
37년생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49년생 한번 뱉은 말은 주위 말을 수 없는 법이니 삼사일언 하자. 61년생 무의식적인 실수가 판국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자. 73년생 방심하다가 급락을 면치 못 할 것이다. 85년생 결과가 의중처럼 좋은 하루이다. 97년생 지혜롭게 행한다면 무난하게 마무리되는 성국이니라. 행운의 숫자 : 47, 61	43년생 미리 대비책을 강구해 놓아야 하느니라. 55년생 시가상조이니 마음을 비우고 대세를 관망하고 있음이 적절할 것이다. 67년생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임하는 것은 중하다. 79년생 중간 점검이 절실한 요청되는 때이니라. 91년생 합리적이야하면 알찬 결실을 맺는다. 03년생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유익하리라. 행운의 숫자 : 00, 68
38년생 임시변통적인 처리는 곧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이니 장기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다. 50년생 신속한 대응 조치가 절실한 때이다. 62년생 기존의 것에 신성한 요소가 가미되는 대국이다. 74년생 이해득실을 따지기 전에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낫다. 86년생 행운이 따르는 길정이 보인다. 98년생 사소한 근심은 버려도 된다. 행운의 숫자 : 08, 92	44년생 흡족에 묻힌 옥을 찾아내는 기쁨이 있다. 56년생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는 바가 많다. 68년생 새로운 것이기는 하지만 검증되지는 않았다. 80년생 대인 관계가 원만해야만 양호한 결과를 낳는다. 92년생 겉으로만 항상 좋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자. 04년생 침착해야만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11, 51
39년생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이 절실하다. 51년생 지극히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 서야겠다. 63년생 상대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75년생 핵심 사항을 놓치지 않아야 대국을 조성할 수 있다. 87년생 철저하게 제어해야만 많은 것을 지킬 수 있다. 99년생 소극적이라면 불협화음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알라. 행운의 숫자 : 17, 83	45년생 섬마가 사람 잡는 법이니 조심하자. 57년생 결실을 취하는 바가 풍성할 것이다. 69년생 정성과 숨씨가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리라. 81년생 일관된 기조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 93년생 도움이 되지 않으니 처음부터 철저히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5년생 상당한 거리를 둔 채 예외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0, 99
40년생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 52년생 세부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수순에 와 있다. 64년생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다. 76년생 영예를 안거나 큰 이익이 따를 수다. 88년생 세밀한 부분까지 고려해야 할 시기이므로 진중한 주의력이 필요하다. 00년생 원만한 정도가 최적의 국량이니라. 행운의 숫자 : 03, 73	46년생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과는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58년생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임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70년생 시종일관 계속되어야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라. 82년생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숙고해볼 일이다. 94년생 겉으로만 풍성할 뿐이지 실속은 빈약하다. 06년생 잠시 숨고르기를 해야 할 시기이다. 행운의 숫자 : 42, 85
41년생 사전에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53년생 중요한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65년생 그림의 떡이어서 차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77년생 쉽게 이루어질 것이니 조바심을 버려도 된다. 89년생 예상 밖의 판국이니 마음을 굳게 먹어야만 한다. 01년생 아무리 살펴봐도 슬모가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8, 54	47년생 행하고 싶거든 기탄없이 처리해야 한다. 59년생 방심한다면 잇따른 약제가 생길 수도 있다. 71년생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곤혹스럽게 할 수있다. 83년생 평상시에 몹시 찾던 것이 코앞에 와 있느니라. 95년생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되어가니 난감해지리라. 07년생 노출될까 봐서 전전긍긍하는 형세이다. 행운의 숫자 : 16, 93